

EYA NEWSLETTER

ENGLISH TITLES

FICTION

제목 : BED- STUY IS BURNING

가제 : 불타는 베드 스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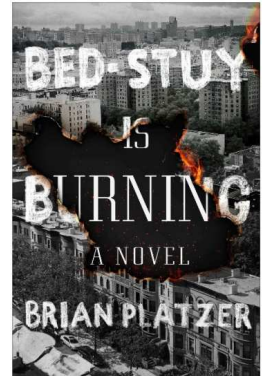
저자 : Brian Platzer

출판사: Atria Books

발행일: 2017년 7월 11일

분량 : 320 페이지

장르 : 소설/ 현대소설



*** “결혼, 젠트리피케이션, 부모로 사는 인생, 인종, 그리고 우리가 선택한 위험한 협상에 관한 긴장 넘치는 데뷔소설. 조너선 프랜즌의 신랄한 위트와 필립 로스의 화려한 기지, 톨스토이의 정감 어린 마음이 모두 느껴지는, 문학적으로 꼭 찬 데뷔작이다.” –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작가 앤 패커**

열두 살밖에 안된 소년이 게임기를 들고 즐겁게 가다가 갑자기 경찰이 쏜 총에 맞는다면, 그것도 무려 열 발이나 되는 총알에 작은 몸이 벌집이 되고 말았다면 이 사회에 정의가 과연 존재하는지, 신이 과연 존재하거나 하는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20년 전, 뉴욕을 무대로 80년대 혼란스러운 도시에서 벌어진 정치적 음모와 인종 갈등의 문제를 집중 조명했던 탐 울프의 데뷔소설 『The Bonfire of the Vanities』의 뒤를 잇는 이 소설에서 신에 작가는 브록클린으로 그 무대를 바꿔 여전히 팽팽한 사회 문제를 그려낸다. 인종 갈등과 빈부격차가 만들어낸 일촉즉발의 긴장감과 오랫동안 누적된 문화, 정체성의 혼란을 비극적인 사건이 촉발시킨 하룻동안의 폭동을 통해 생생하게 보여준다.

월스트리트 전문 투자분석가인 애런은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랍비였다. 지금도 랍비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만 믿음이 사라졌으니 제대로 된 종교인 혹은 종교학자라고 볼 수도 없다. 그 역시 삶에서 온갖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돕고 싶어서 랍비의 길을 택했었다. 고통 받는 사람들을 이끄는 좋은 지도자가 되고 싶었다. 글을 읽고 분석하는 것을 좋아해서 성경을 놓고 몇 시간이고 공부를 하곤 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강연을 하고, 자신이 귀 기울여 듣고 있다는 사실에 상대가 감동 받는 모습을 보는 것도 좋았다. 사원에서든, 집이나 병원에서든 그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찾아가 고민을 듣고 의견을 말해주었다. 애런은 젊은 나이에든 총명함과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는 능력, 친절함을 두루 갖춘 좋은 랍비였다. 하지만 문제는 사람들이 맞닥뜨린 무거운 삶의 고통을 도저히 설명할 수 없다는 것에서 시작됐다. 아무 죄도 없는 어린 아들이 난폭한 운전자가 몰던 차에 치어 그대로 즉사한 후, 그 불쌍한 아이 어머니에게 애런이 해줄 수 있는 말이 없었다. 랍비인 그는 신의 뜻을 이야기하며 상실의 고통을 덜어주어야 하지만 애런 자신부터가 납득이 되지 않았다. 신이 뜻이 있어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신이 아이 어머니를 시험해보겠다는 의미인가? 자식을 죽이는 것으로? 더 큰 계획이 있다고 해서 이런 방법이 용납될 수 있단 말인가? 벌을 내리려는 계획이 아닌 이상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그만큼 엄청난 벌을 받을 정도로 그녀가 죄를 지었는지는 인간이 판단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그렇다고 무턱대고 그러리라 믿고 넘어갈 수도 없었다. 이 모든 부당함, 고통을 감내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 고통이 남은 삶을 지배하지 않도록 애쓰는 것일 뿐 어떤 종교적 의미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후 애런은 랍비의 길을 포기했다. 그리고 지금, 최첨단 유행을 선도하는 인기 잡지에 유명 인사에 관한 글을 기고하는 아내 아멜리아와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들, 사이먼까지 셋이서 베드퍼드 스타이베스트, 일명 ‘베드 스타이’에서 살고 있다.

사이먼의 조그마한 가슴이 오르락내리락하며 깊이 잠든 모습을 보노라면 랍비로 살았던 과거와 지금 이런 행복을 누린다는 사실 모두 믿기지가 않았다. 그러나 뉴욕에서도 가장 에너지가 넘치고 역사적으로 늘 위태로운 분위기가 팽배하던 베드 스타이에서의 평온한 삶은 어린 소년이 공원 근처를 지나다 경찰이 쏜 총에 맞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급변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애런의 가족이 그 폭동과 갈등의 중심부에 놓인다.

사이먼을 돌봐주던 유모 앙투아네트와 애런 가족과 같은 블록에서 아들 데렉과 둘이 살고 있는 남자 주피터, 애런이 사는 건물 지하에 살던 알 수 없는 세입자 대니얼, 그리고 서서히 타오르는 갈등의 불길에 뛰어든 소녀 새라까지, 각자의 사연을 지닌 다양한 인물들은 마침내 폭동이 시작된 운명적인 날, 끝을 알 수 없는 소용돌이 속으로 스스로를 몰고 간다.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는 분노와 갈등의 상황에서도 결코 잠들지 않는 인본주의의 핵심, 그리고 어떻게든 주어진 삶을 살아가려 애쓰는 현대 도시인들의 고된 싸움을 사회 다양한 위치에 놓인 여러 인물을 통해 생동감 있게 그린 소설이다.

<저자 소개>

브라이언 플래처(Brian Platzer)는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존스 홉킨스 글쓰기 세미나 프로그램에서 예술석사를 취득했다. 중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면서 「뉴요커」, 「뉴욕타임스」, 「뉴리퍼블릭」, 「살롱」 등에 글을 기고해 왔다. 위 데뷔 소설의 무대가 된 베드퍼드 스타이베스트 지역에서 아내, 두 아들과 살고 있다.

제목 : END OF THE ROAD

가제 : 길이 끝나는 곳

저자 : LS Hawker

출판사: Witness Impulse(HarperCollins USA)

발행일: 2017년 1월 31일

분량 : 384 페이지

장르 : 소설/ 스릴러



*** 5개국 판매, USA 투데이 베스트셀러 데뷔작 『THE DROWNING GAME』으로 ‘국제 스릴러 작가 상’ 최우수 데뷔소설 부문 결승에 오른 작가가 선보이는 속도감 넘치는 스릴러**

*** 데뷔작과 독일, 일본,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에 판매된 두 번째 소설 『BODY AND BONE』도 두 아마존 독자 평점 4.5 이상 획득**

인구가 1,200명 밖에 안 되는 캔자스 주 작은 마을, 미란다에서 프로그램 개발 사업을 시작한 제이드는 이 낯선 마을에 머문 지 12주째 되던 어느 날, 섬뜩한 일을 겪는다. 일을 시작하면서 알게 된 친구이자 동료, 엘리아스가 이발소에서 머리를 깎는 동안 이미 그 일은 시작됐다. 사실 그 이발소부터가 어딘가 자연스럽지 않아서, 미란다로 온 뒤 뭐라 구체적으로 말할 순 없지만 제이드에게 묘하게 이상한 기분을 자아낸 이 동네의 분위기가 또 다시 상기된 참이었다. 엘리아스나 베르코, 올리비아 모두 제이드가 그런 느낌이 든다고 말하자 약간 정신 나간 사람 보듯 쳐다봤다. 이발소에서 제이드의 심기를 거스른 건 잡지 더미였다. 어느 동네건 미용실이나 이발소에는 철 지난 잡지들이 먼지와 손때를 뒤집어쓰고 쌓여 있어야 하는데, 여긴 수십 권의 잡지가 전부 최신호였다. 그렇다고 이곳이 늘 손님으로 북적대는 대형 이발소도 아니었다. 게다가 이발사는 제이드가 여태까지 만난 미용업계 종사자 중에 가장 말이 없었다. 제이드가 먼저 다가가 인사를 건네도 한참 뜸을 들인 후에야 한마디 톱 밸을 뿐, 말하는 것 자체가 불쾌한 기색이 역력했다. 큰 사건에 휘말려 증인보호 대상이라도 된 건가? 제이드는 다 사정이 있겠거니 넘어가려 했지만, 그때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이발소 바깥에서 웬 낯선 남자가 유리 너머로 제이드를 훑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뭐라고 외치는데, 두꺼운 유리 너머로 목소리가 들리진 않았지만 입 모양이 ‘제이드’라고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았다. 대체 저 사람이 내 이름을 어떻게 알지? 소스라치게 놀란 제이드가 엘리아스에게 이야기하려는 찰나, 그 남자는 어딘가로 사라졌다.

제이드는 주변 친구들이며 동료들이 천재라 부를 정도로 컴퓨터 공학 분야에서 재능을 타고났다. 이 새로운 지역에서 작은 회사를 열게 된 것도 제이드가 개발한 커뮤니케이션 소프트웨어를 상용화하고 더 큰 사업으로 키우기 위해 시작된 일이었다. 엄마가 루게릭 병 진단을 받고, 치료법도 없이 나날이 상태가 악화되고 있는 것도 제이드의 가족에게 큰 시름을 안겨 주었지만 여동생 클레멘타인이 엄마가 병든 사실을 알고부터 자폐 증상을 보인 것이 제이드의 마음을 갈가리 찢어놓았다. 그리하여 도통 말을 하지 않고 자기만의 세계에 틀어박힌 동생을 위해, 동생과 어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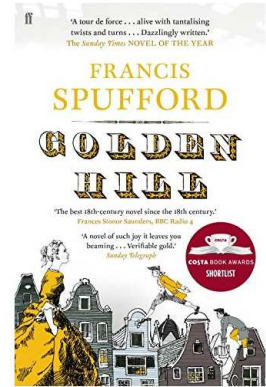
게든 대화를 나누기 위해 프로그램까지 개발하게 된 것이다. 미란다라는 이 마을에서 새 프로그램은 좋은 동료들의 손을 거쳐 여러 번의 테스트와 개량 작업도 다 무사히 통과하며 점점 다듬어지고 있지만 엄마와 클레멘타인의 상태는 영 나빠지기만 했다. 그리고 제이드에게도 알 수 없는 그림자가 점점 가까이 다가왔다. 이발소 바깥에서 제이드를 불러대던 이상한 남자가 그날 오후 슈퍼마켓에 들른 제이드의 등 뒤에 다시 나타난 것이다. 추측대로 제이드의 이름을 다 알고 있는 그 남자는 험상궂은 표정으로 제이드를 거칠게 바깥으로 데려 나갔다. 대체 이 남자의 정체는 무엇일까? 미란다에서 제이드가 느낀 묘한 분위기는, 결코 착각이 아니었다.

왜 마을에 어린아이가 하나도 보이지 않을까? 마흔 살이 넘는 사람도 전혀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발소 주인처럼, 왜 미란다 주민들은 어딘가 불편하고 조마조마한 기색이 뚜렷할까? 제이드를 노리는 세력은 집요하게 추적을 이어가고, 금기야 연구실과 사는 집에 총으로 무장한 사람들이 때로 몰려오는 일까지 벌어진다. 제이드와 회사를 안전하게 지켜주려고 나왔다는 이해하기 힘든 설명과 더불어 자신에게 분명 무언가 감추는 것이 분명한 동료들의 이상한 낌새까지 감지되자 제이드는 거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힌다. 모두가 입을 꼭 닫고 있는 상황에서 분명한 사실은 누군가 자신의 프로그램을 노리고 있다는 것, 그리고 목적을 위해서라면 제이드 자신도 프로그램과 함께 이 세상에서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제이드를 겨냥한 위협은 가족 전체는 물론 더 방대한 의도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제이드가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녀를 노리는 손길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온다.

<저자 소개>

LS 호커(LS Hawker)는 캔자스 대학교에서 저널리즘을 공부하고 “사람들은 너무 멍청해(People Are So Stupid)”라는 대담한 이름의 라디오 쇼를 진행하다가 잡지 편집자, 사진작가로도 활동했다. 다양한 일을 하면서도 열네 살에 처음 쓰기 시작한 소설 집필의 열정을 이어 왔다.

제목 : GOLDEN HILL
가제 : 골든힐
저자 : Francis Spufford
출판사: Faber & Faber
발행일: 2016년 9월 29일
분량 : 352 페이지
장르 : 소설/ 역사 소설



* **2016년 코스타 도서상(Costa Book Awards) 최우수 데뷔소설 상 수상작**

* 독일, 네덜란드, 미국, 체코, 터키 판권 계약 체결

* “저명한 논픽션 작가가 쓴 놀라운 데뷔작. 미국의 독립혁명이 일어난 시기로부터 **30년 전, 18세기** 중반 맨해튼을 찾아온 미스터리한 젊은 청년의 흥미진진한 이야기는 최고 수준이다” - 「가디언」

뉴욕이 아직 인구가 7,000명 정도에 불과한 작은 마을이던 1764년, 영국에서 출발한 ‘헨리에타’ 호에서 젊은 남자 한 사람이 뉴욕 땅에 발을 내딛는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11월의 어느 저녁, 상점과 사무실 업무가 다 끝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녁식사를 위해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재촉하던 시간쯤 배에서 내린 청년은 곧장 골든 힐 거리로 향한다. 그의 목적지는 ‘러브웰 앤 컴퍼니’라고 적힌 간판이 달린 작은 회계사무소였다. 주인장 러브웰 씨에게 일을 배우는 제자가 램프에 불을 붙이는 모습을 힐끗 보며 안으로 들어선 남자는 가발을 뒤집어쓴 작은 체구의 러브웰과 마주한다. 그리고 영국에서 벤야드와 하이스 씨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가지고 왔으니 현금으로 바꿔달라고 찾아온 용무를 밝힌다. 그 두 사람이라면 러브웰이 20년 전부터 거래를 해온 사람들이다. 일단 영업 시간이 다 되어가니, 돈은 내일 아침에야 찾을 수 있고 10 파운드가 넘는 금액은 현금이 부족한 상황이라 일주일 정도 기다려야 내줄 수 있다고 러브웰이 설명하자, 남자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떠오른다. 그가 꺼낸 봉투에 든 어음에는 그보다 훨씬 큰 금액이 적혀 있기 때문이다.

러브웰은 남자가 건넨 봉투에 벤야드와 하이드 씨의 익숙한 밀랍 봉인이 찍혀 있는 것을 확인하고, 내용물을 꺼낸다. 그러나 눈에 들어온 숫자를 보고도 얼른 와 닿지가 않았다. 어음에 적힌 금액은 무려 천 파운드 스텔링, 뉴욕에서 사용하는 돈으로 따지면 남자가 친절하게 읊어주는 것처럼 1738 파운드 하고도 15실링 4 펜스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거액이었다. 러브웰은 제자를 시켜 램프를 더 가까이 밝히도록 한 뒤, 어음을 요리조리 살펴보았다. 하지만 그가 종이나, 서명이나, 글씨체나 어느 것 하나 문제될 것이 없었다. 의아함은 이 거액을 갖고 찾아온 남자를 향한 질문으로 이어졌다. 어떻게 이렇게 큰 돈을 받게 됐는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고 이 돈을 어디다 쓸 생각이냐고 질문을 쏟아냈지만 남자는 빙긋 웃기만 했다. 돈은 보이는 그대로고, 받아야 할 돈을 받았을 뿐이며 자신은 굳이 말하자면 무언가를 사고 파는 사람인데 그 내용은 극비라 말해줄 수 없다는 아주 모호한 대답만 돌아왔다. 러브웰은 20년이 넘도록 벤야드 씨가 일년 내내 자신이 다루는 금액에 맞먹는 이런 큰 돈을 사전에 아무 기별도 없이 보낸 적이 없다고 항변했지만 남자는 그런 반응조차

개의치 않았다. 어음에 적힌 그대로, 60일 내에 돈을 받기만 하면 그만이라는 태도였다. 그런데 더 이상한 요구가 덧붙여졌다. 돈을 전부 동전으로 달라는 것이다.

어느 날 갑자기 잉글랜드에서 뉴욕으로 건너온 스물네 살 수수께끼 같은 청년, 리처드 스미스가 러브웰을 찾아와 막대한 돈을 요구하면서 이야기는 시작된다. 그는 아무리 구슬리고 협박해도 자신의 정체나 그 돈의 구체적인 출처, 용도에 대해서는 일체 입을 열지 않는다. 대체 그 큰 돈을 그것도 동전으로 받아서 어디다 쓸 작정일까? 돈이 마련될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스미스는 사랑에 빠지고 결투 신청을 받아 목숨 건 싸움에 나서고 두 번이나 체포된다. 마치 일을 제대로 저지르기로 작정이라도 한 사람처럼 여기저기서 온갖 문제에 휘말리며 정신 없는 나날을 보내는 그에게 정체를 밝히려는 사람들의 호기심은 커져만 간다. 믿고 돈을 정말 내줘도 되는 사람일까? 혹은 자신에 대해서는 전혀 밝히지 않는 이 의문스러운 청년이 믿을 만한 근거를 대지 않는 한 돈을 내주지 말아야 할까? 어느 쪽이건 위험한 건 마찬가지다. 사기꾼일지도 모르는 자에게 엄청난 돈을 건네거나, 현재로서는 아무런 근거도 없는데 심증만으로 돈을 내어주지 않아 더 큰 보복과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 스미스라는 한 사람의 출현이 만들어낸 온갖 소문과 끊임없는 사건이 18세기 중반, 이제 막 대도시로 성장해 나가려고 꿈틀대던 뉴욕을 무대로 흥미진진하게 펼쳐진다. 저자의 박식한 역사 지식이 사실감을 더하고, 마지막까지 드러나지 않는 스미스의 정체가 책장을 계속 넘기게 만드는 소설이다.

<저자 소개>

프란시스 스퍼포드(Francis Spufford)는 논픽션 작가로 여러 상을 수상하며 이름을 널리 알렸다. 첫 번째 저서 『I May Be Some Time』으로 1996년 작가 길드 상(Writers' Guild Award) 논픽션 최우수 도서 상을 수상하고 이어 밴프 마운틴 도서 상(Banff Mountain Prize), 서머셋 몸 상(Somerset Maugham Award)을 받았다. 이어 『The Child That Books Built』, 『Backroom Boys』와 아홉 개 언어로 번역된 『Red Plenty』 등을 이어서 발표했다. 2007년에는 영국 왕립문학협회 회원으로 선출됐다. 현재 골드스미스 칼리지에서 글쓰기를 가르치면서 글을 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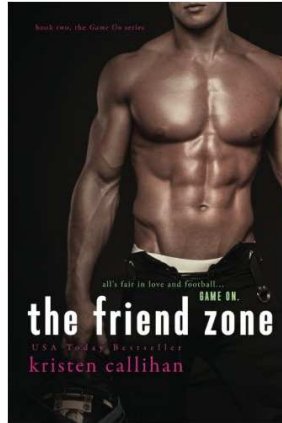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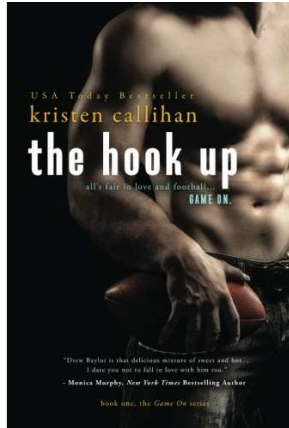
제목 : THE GAME ON SERIES

가제 : 게임 온 시리즈

저자 : Kristen Callihan

출판사: CreateSpace Independent Publishing Platform

장르 : 소설/ 성인·로맨스 소설



* 미국에서 총 **10만** 부 이상 판매된 인기 로맨스 시리즈

* 「**USA** 투데이」 베스트셀러

1권. 어쩌다 한 번(The Hook Up) 발행일: 2016년 1월 16일 / 분량: 352 페이지

애나 존스는 대학에 입학한 그 날부터 아무 탈없이 졸업하는 것만을 목표로 살기로 했다. 결코 정상적이라 할 수 없었던 집안 사정과 다 잊고 싶은 지난 날의 고달픈 생활에서 벗어나기 위해 애나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었으니까. 그래서 열심히 공부만 하고, 졸업장을 따는 데 걸림돌이 될 만한 건 다 물리치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개강 첫 날, 첫 수업이 열린 강의실에서 드류 베일러와 마주친 순간 이미 그 다짐은 흔들리기 시작했다.

어딘가 낯이 익다고 생각했지만 드류가 정말 그 ‘드류’일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온 나라에 모르는 사람이 없는 대학 미식축구의 스타, 그가 같은 강의실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신기한 일인데 그는 애나를 뚫어져라 바라보기 시작했다. 다른 곳을 본다고 애써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드류는 애나를, 오직 애나만을 응시했다. 그 눈빛에 가득한 알 수 없는 호소와 건장한 체격에 비해 왠지 귀여운 구석이 있는 드류의 매력에 애나 역시 강하게 흔들렸다.

타고난 운동 실력으로 어딜 가나 주목 받는 존재가 된 드류는 전국 챔피언십에서 두 번이나 팀을 승리로 이끌고 최우수 선수에게 주어지는 하이스먼 상까지 받았다. 미래만 활짝 열린 게 아니라, 그를 보기만 해도 목매는 여자들이 말 그대로 줄을 설 지경이었다. 하지만 애나 존스와 학교에서 처음 마주친 그 순간부터 드류의 머릿속엔 애나 외에 다른 건 생각도 나지 않았다. 차가우면서도 허를 찌르는 애나의 유머 감각, 남들은 감히 말도 잘 못 부칠 정도로 엄청난 자신의 인기도 진심으로 별로 신경 쓰지 않는 태도도 드류의 호기심을 자극했지만 애나는 그가 관심을 보일 때 전혀 반응하지 않은 유일한 여자이기도 했다. 하지만 오기가 전부는 아니었다. 늘 자신을 피

해 다니던 애나와 어쩌다 한 번, 우연히 태어나 가장 뜨거운 사랑을 나눈 후, 드류는 애나를 곁에 두는 일에 모든 것을 건다. 애나는 그냥 지나가는 일로, 아무 일 아니었던 것처럼 지내려 하지만 드류는 그럴 수가 없다. 그리고 드류는 목표를 정하면 무조건 이기는 사람이었다.

두 사람의 팽팽한 긴장감과 미묘한 감정 교류가 시종일관 이어지는 가운데, 애나는 헤어내기 힘든 과거를 딛고 서서히 드류를 향해 마음을 열기 시작한다.

2권. 친구 사이(The Friend Zone) 발행일: 2016년 10월 1일 / 분량: 296 페이지

드류와 같은 팀에서 공격수로 뛰고 있는 그레이 그레이슨에게 유명한 스포츠 에이전트가 연락을 해왔다. 어떻게든 그레이를 자신이 관리하는 선수 명단에 넣고 싶은 마음에, 그는 그레이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선뜻 제안한다. 바로 자동차였다.

절친한 친구 드류가 좋아하는 여자와 잘 되길 바라며 차를 빌려준 바람에 이동이 불편해진 그레이에게 에이전트는 핑크색 피아트를 빌려준다. 문제는 그레이 같은 근육질 남자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 차가 에이전트의 딸, 아이비가 세상에서 가장 아끼는 물건이라는 것. 아빠가 허락도 없이 자기 차를 뇌물로 사용한 사실을 알고 아이비는 엄마 일을 돕기 위해 떠난 런던에서 그레이에게 분노가 가득 담긴 문자를 날린다. 하지만 둘의 대화는 이상하게 술술 흘러가고, 서로에게 형용할 수 없는 친근감을 느낀 두 사람은 온갖 고민을 다 털어놓는 문자 친구가 된다. 하지만 아이비가 미국에 돌아오면서, 끈끈한 우정은 흔들리고 만다. 그레이는 더 이상 아이비를 친구로 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일을 같이하는 사람과 관련된 여자와는 사랑하지 않는다는 규칙, 아빠가 데리고 있는 선수와는 어떠한 관계도 맺지 않는다는 규칙, 그레이와 아이비 둘 다 자신만의 규칙을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지만, 볼수록 끌리는 서로의 매력은 거부하면 할수록 뜨거워진다.

3권. 게임 계획(The Game Plan) 발행일: 2016년 11월 1일 / 분량: 322 페이지

덥수룩한 턱수염과 우람한 근육을 넓게 덮은 문신이 트레이드마크인 NFL 선수 이든. 외모와 달리 평생 곁에 있어줄 여자를 찾는 이든의 눈 앞에 사랑스러운 피오나가 나타난다. 자신의 유명세를 개의치 않는 것까지는 좋았지만, 그에게 남자로서 전혀 관심이 없는 피오나의 태도에 이상한 자극을 받은 이든은 여태 어떤 여자에게도 느낀 적 없는 이 강렬한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리라 마음 먹는다. 애타게 찾던 평생의 여자가 피오나라는 확신이 든 이상, 그녀 역시 자신을 평생의 남자라 확신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피오나 역시 밀어낼수록 자꾸만 생각나는 이든 때문에 괴로워하고, 두 사람의 불꽃 튀는 감정은 알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간다.

<저자 소개>

크리스틴 캘러한(Kristen Callihan)은 RITA 어워드 수상자이자 RT 리뷰어가 선정하는 ‘초이스 상(RT Reviewer's Choice awards)’을 수상한 작가이다. 데뷔작 『FIRELIGHT』는 「RT 매거진」의 ‘실 오브 엑셀런스(Seal of Excellence)’를 수상하고 「라이브러리 저널」이 선정하는 ‘올해 최고의 도서’, 「퍼블리셔스 위클리」가 선정한 ‘2012년 봄 우수 도서’로 선정됐다.

NON- FICTION

제목 : NOTES ON A BANANA

가제 : 바나나의 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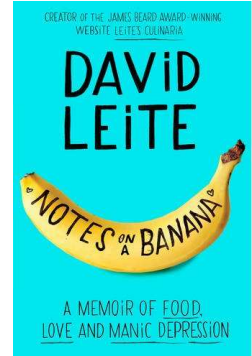
저자 : David Leite

출판사: Dey Street Books

발행일: 2017년 4월 11일

분량 : 272 페이지

장르 : 회고록



*** 요리, 식품 분야의 오스카 상, ‘제임스 비어드 상’을 두 차례 수상한 저자의 회고록**

*** 가족, 음식, 성 정체성의 혼란, 정신질환에 관한 무거운 이야기를 유쾌하고 대담하게 풀어낸 글**

1990년에 제정된 제임스 비어드 상은 뛰어난 요리사와 음식점, 와인 전문가, 음식에 관한 글을 쓰는 저널리스트와 요리책 저술가, 레스토랑 실내, 건축 디자이너를 포함하여 음식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들을 수상자로 선정하며 ‘요리, 식품 분야의 오스카 상’으로 불린다. 600명이 넘는 업계 전문가들이 투표로 선정하는 이 명예로운 상을 두 차례나 수상한 저자는 1999년부터 ‘레이테의 주방’이라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며 음식에 대한 열정과 기발한 요리법을 사람들과 공유해 왔다. 인쇄 매체는 물론 다양한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에도 출연하며 유쾌한 입담을 자랑해온 그는 사실 썩 유쾌하지만은 않은 삶을 지나왔다. 결코 가볍지 않은 자신의 병과 개인적인 혼란, 그리고 아주 어릴 때부터 시작된 음식과 요리에 대한 열정을 담담하게, 때로는 대담하게 고백한 회고록이 완성됐다. 대중에게 큰 사랑을 받는 유명인사가 되기까지 저자가 거처온 순탄치 않은 삶의 여정과 미소, 폭소를 자아내는 재미 있는 사연들이 깊은 감동과 함께 전해진다.

저자가 태어나 1960년대에 어린 시절을 보낸 곳은 메사추세츠 폴 리버 지역이었다. 독실한 가톨릭 신자이자 종교만큼 음식에 대한 열정도 뒤지지 않는 포르투갈 이민자들이 모여 사는 동네에서, 누가 어느 집 아이이고 누가 어느 집 부모인지 서로 개의치 않는 돈독한 이웃의 정을 느끼며 자랐다. 지도를 들여다보면 폴 리버의 위치가 꼭 안으로 쑥 들어간 겨드랑이 같아서 저자는 다섯 살 때부터 처음 본 사람들에게는 “저 여기 살아요!”라며 겨드랑이를 가리키는 농담을 던지곤 했다. 땅콩버터와 바나나를 바른 샌드위치를 워낙 좋아해서 엄마가 ‘바나나’라는 별명까지 붙여준 어린 시절은 영리하고 꿈 많은 아이가 상상력을 마음껏 발휘하며 꿈을 키우기에 정말 좋은 환경이었다. 머리 모양에 늘 극도로 신경 쓰고, 그맘때 아이들이 다 그렇듯 틈날 때마다 텔레비전 앞에 죽치고 앉아 온갖 프로그램을 다 보면서 드라마 속, 스윙 도어가 달린 주방에 훌쩍 반해버린 저자는 언젠가 꼭 저런 주방이 갖춰진 집에 살고 말리라 다짐했다. 하나같이 요리를 잘하고, 음

식을 즐기는 문화가 생활 깊숙이 자리한 포르투갈 사람들 사이에서 자란 덕분에 저자도 자연스레 요리의 즐거움을 일찍부터 깨달았다. 하지만 그에게 요리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 서른 중반이 되어서야 양극성 장애로 진단을 받기까지, 왜 자신이 그토록 감정이복이 심한지 이유도 알지 못한 채 기분이 롤러코스터처럼 오락가락할 때면 요리를 하면서 마음을 다스려온 것이다. 그에게는 일종의 효과적인 치료법이 바로 요리였다.

저자는 그저 까불기만 하던 아이가 머릿속이 병인지도 몰랐던 병을 앓고 자신이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면서 겪은 극도의 혼란과 요리에 대한 애정을 글과 레시피로 발산하며 그 혼란을 극복해온 과정을 털어 놓는다. 더불어 뉴욕 치즈케이크가 발단이 되어 20년 넘게 사랑을 지켜온 연인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와 행복, 건강, 성공을 가져다 준 소중한 요리에 얹힌 이야기들도 담겨 있다. 유머와 깜짝 놀랄 만큼 솔직한 저자의 고백은 Augusten Burroughs의 『RUNNING WITH SCISSORS』, David Sedaris의 『NAKED』, Jenny Lawson의 『FURIOUSLY HAPPY』 등 앞서 나온 화제의 회고록들을 상기시키며 강력한 웃음과 눈물을 한꺼번에 자아낸다.

<목차>

1부. 조기 발현

- 메사추세츠의 거드랑이
- 주걱 자매
- 무엇이 전설을 만들까
-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겠어
- 높은 곳으로
- 숨소리가 거친 산타클로스
- 살살 좀 밝으세요, 라이트 씨 (이하 생략)

2부. 급속 순환

- 당장 멈춰, 그러다 장님 될라
- 산만한 나날들
- 되보하는 행복
- 수축 포장(이하 생략)

3부. 예방 (이하 생략)

<저자 소개>

데이빗 레이테(David Leite)는 음식에 관한 글과 요리책을 쓰는 저술가이자 웹 콘텐츠 편집자이다. 1999년 ‘Leite’s Culinaría’라는 웹사이트를 만들어 2006년과 2007년, ‘제임스 비어드 상(James Beard)’을 수상했다. 첫 번째 저서 『The New Portuguese Table』로 2010년 IACP 데뷔 소설/줄리아 차일드 상(IACP First Book/Julia Child Award)을 수상했다. 저술활동 외에도 라디오, 텔레비전을 통해 음식과 요리에 관한 생각, 아이디어, 정보를 꾸준히 제시해 왔다.

제목 : A THOUSAND HILLS TO HEAVEN

가제 : 천국으로 가는 천 개의 언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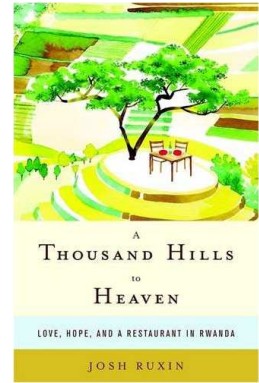
저자 : Josh Ruxin

출판사: Little, Brown and Company

발행일: 2013년 11월 5일

분량 : 320 페이지

장르 : 회고록



- * “회고록이자 역사적 교훈을 전하는 책이고 경영 원칙으로 공중보건 사업을 이끄는 방법이 논의되기도 하는 이 책에 담긴 르완다에서의 삶은 놀라움과 영감을 동시에 제공한다.” - 「퍼블리셔스 위클리」
- * “흡입력 있게 감동을 선사하는 이야기” - 「뉴욕타임스」
- * “미국인 부부가 르완다에서 세 자녀를 키우며 수천 명의 인생에 엄청난 변화를 일으킨 희망의 이야기. 개인적인 모험이지만 빈곤 타파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진지한 메시지가 될 것이다.” - 「커커스 리뷰」

미국에서 시골 마을을 돌며 식량을 전하고 건강을 관리하는 일에 매진하던 남편과 식품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발휘하며 열심히 일하던 아내가 어느 날, 아직 어린 세 아이들까지 데리고 르완다로 향한다. “정말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 그것도 르완다처럼, 대학살의 기억과 상처가 여전히 남아 있고 빈곤이 극심한 곳에서?” 한창 신혼을 즐기던 두 사람이 파티에서 들게 된 이 이야기는 도저히 소화되지 않는 음식처럼 오랫동안 뇌리에 머물렀다. 폴브라이트 장학생다운 영민함과 적극적인 공중보건 사업 활동가, 정부와 사업가들에게 경영 전략과 경제개발 방안을 조언하는 컨설턴트로 활약해온 사람답게, 남편은 마침내 르완다에서 시작할 ‘밀레니엄 빌리지 프로젝트’를 기획한다. 르완다 정부가 그의 사업을 승인하자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2005년, 르완다로 향한 것이다. 편하고 행복했던 맨해튼의 집과 가족들, 친지들은 물론 익숙한 서구 문화와도 작별한 두 사람은 ‘호텔 르완다’ 바로 건너에 있는 살 집과 편도 항공편만 마련한 채 그 무엇도 확실치 않은 땅에 발을 내딛는다. 저자는 처음 계획대로 르완다에서 에이즈와 말라리아, 결핵과 같은 전염병과 극심한 영양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강 관리 시설을 짓는 일을 시작하고, 아내는 르완다의 수도, 키갈리에서 ‘천국’이라는 이름을 내건 레스토랑을 연다. 앞이 보이지 않는 먼지와 그 먼지만큼 절망이 가득한 곳, 마냥게 마을은 ‘마을’이라 부를 수도 없을 만큼 망가지고 폐쇄된 상태였지만, 젊은 부부의 긍정적인 에너지와 희망은 온통 퍼진 어둠을 서서히 거두기 시작한다.

1994년 단 3개월 동안 전체 인구의 10퍼센트에 달하는 100만 여명이 학살 당한 르완다 내전은 인류 역사의 최대 비극이자 터키의 아르메니아인 학살, 나치의 유대인 학살과 더불어 20세기 가장 큰 규모로 벌어진 끔찍한 대학살로 기록된다. 저자는 그 믿기 힘든 살상이 군인도 아닌 평범한 민간인들의 손에서 자행된 지 10년 정도가 지난 시기에 변화를 일으키겠다는 일념으로 르

완다를 찾았다. 보건 전문가들, 계발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전문가들, 농업 기술 전문가들로 꾸려진 팀은 근면하고 재능 넘치는 마을 사람들과 멀리서 변화를 응원하며 보내온 기부자들의 넉넉한 도움 덕분에 마침내 기적 같은 변화를 만들어냈다. 저자가 다른 지역에서 성공적인 계발 계획으로 삼을 정도로 질병과 영양실조의 고통에 시달리지 않는 마을을 탄생시킬 때, 아내는 새로운 레스토랑에 지역 사람들을 고용하고 직접 기른 농산물을 활용한 요리를 선보이며 역시나 큰 성공을 거둔다. 대학살의 기억은 하루 아침에 지워질 수 없겠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우려와 달리 부부는 그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의 기억 속에서도 생존자들은 서로 협력하고, 다시 미래를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직접 증명해 보였다. 건강해야 변화가 가능하다는 두 사람의 굳건한 원칙, 열정을 담아 일할 수 있는 기회와 경제 성장의 의미를 새로운 시각에서 접하고 공감하게 되는 책이다.

<목차>

1. 그곳으로
2. 습기
3. 이웃 사람들이 그 뼈들을 알 겁니다
4. 발을 디디다
5. 고된 생활의 세세한 면면
6. 사랑하는 뉴욕, 그리고 원숭이
7. 아프리카로
8. 안개에 갇힌 이방인
9. 선물로 받은 말이 한 건 했네
10. 르완다는 관찮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곳에서 8,000마일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11.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
12. 바르샤바
13. 죽음의 다리
14. 규칙 1
15. 미합중국에서 온 사람들 (이하 생략, 총 41장과 맺음말로 구성)

<저자 소개>

조쉬 룩신(Josh Ruxin)은 콜롬비아 대학교 공중보건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뉴욕타임스, 포브스 등에 글을 기고해 왔다.

제목 : THE SIXTIES

가제 : 60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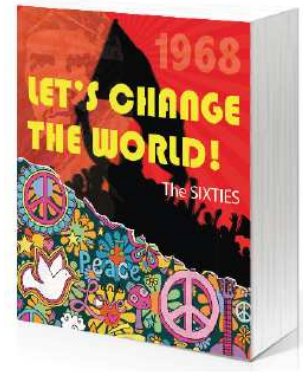
저자 : Delius Editorial

출판사: Delius Book Packagers

발행일: 2017년

분량 : 약 400 페이지 (약 4만 단어)

장르 : 역사



- * **1960년부터 1970년까지 세계 각국에서 벌어진 사회, 문화, 정치적 변화를 총망라한 기록**
- * **중대한 역사적 사건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의 생생한 증언, 컬러 사진과 일러스트레이션과 함께 120여 가지 주제로 제시한 종합 역사서**

1960년대는 전 세계적으로 자유를 찾기 위한 시민들의 목소리가 한껏 높아지고 사회 시스템에 변화를 일으키려는 움직임이 거세게 일었던 격동의 시대였다. 사회 전반에서 깨어난 변화의 바람은 청년 문화를 바꿔놓고 발언과 언론의 자유, 그리고 여성들이 마땅히 누려야 하는 자유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미국, 체코, 인도네시아, 프랑스, 이집트, 독일, 아르헨티나 등 어느 한 지역에 국한되지 않았던 이 폭넓은 변화를 당시의 사진 자료와 일러스트레이션과 함께 제시한 참신한 역사서가 완성됐다. “세상을 바꿈시다!”라는 외침이 제목에 포함된 이 역사서는 1960년부터 1970년까지 곳곳에서 벌어진 변화를 포괄적으로 포착한 기록서다.

미국에서 나이와 성별에 따른 차별에 반대하는 시민운동이 시작되던 시기, 서유럽에서는 학생들이 길거리로 나와 전후 사회에 내려 앉은 이데올로기에 반대하고 나섰다. 같은 시기 아프리카 대륙과 극동 지역에서는 식민 체제나 군사정권의 폭압에서 벗어나 자유를 되찾으려는 사람들이 행동에 나섰다. 이상주의의 개념이 새롭게 정의되자, 미국의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발달하기 시작한 히피의 반체제운동, 반문화의 분위기는 다른 나라들로 퍼져 나갔다. 같은 시대, 쿠바에서는 두 열강이 맞부딪치면서 쿠바 사태의 발단이 되고 독일에서는 베를린 장벽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베트남 전쟁과 뉴욕, 샌프란시스코, 파리, 프라하, 베를린, 로마 등 수많은 도시에서 벌어진 반전 운동,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폭력 사태도 1960년대를 이야기할 때 결코 빼놓을 수 없는 핵심 요소이다.

1960년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에 피임약 판매가 승인되면서 성문화에 찾아온 대대적인 변화를 시작으로 1970년 4월 22일 ‘지구의 날’이 제정되어 전 세계적인 자연보호 운동이 시작된 계기가 마련된 이야기까지, 60년대를 상징하는 120여 가지 사건이 발생 연도와 국가별로 나뉘어 두 페이지씩 제시된다. 한 주제마다 한 페이지는 사진이나 일러스트레이션으로 시각적인 이해를 돕고, 바로 옆 페이지에 해당 주제와 관련된 주요 사건, 배경, 관련인물, 결과를 간결하게 요약한 텍스트가 제시된다. 차례대로 읽지 않고 관심이 가는 주제나 국가, 지역을 선택하여 볼 수 있다. 텍스트는 그리 길지 않지만 중요한 역사적 기록과 자료는 모두 담겨 있어 필요한 정보와 꼭 기억해야

하는 의미를 모두 얻을 수 있다. 같은 시기, 생김새도 문화도 경제적, 사회적 발달 수준도 제각기 다른 세계에서 신기하리 만치 공통적으로 나타난 변화의 양상을 날카롭게 포착하고 핵심을 정리하여, 전체적인 흐름을 큰 무리 없이 파악할 수 있는 특별한 역사서다.

<목차>

1. 1960 – (미국) 피임약의 출시
2. 1960 – (미국) 돌파구를 맞이한 언론 민주주의: 케네디 vs. 닉슨
3. 1960 – (브라질) 브라질리아의 탄생
4. 1960 – (독일, 영국) 부활절 행진 운동
5. 1960 – (아프리카) 아프리카의 해
6. 19360 – (콩고) 꿈과 현실: 콩고 민주공화국과 루뭄바 정권
7. 1960 – (스리랑카) 시리마보 반다라나이케: 현대사회에 등장한 최초의 여성 정부지도자
8. 1960 – (프랑스) 프랑스 영화계의 누벨바그: 프랑소와 트뤼포 감독의 ‘네 멋대로 해라’
9. 1961 – (독일) 베를린 장벽 건설
10. 1961 – (미국/유럽) 팝 아트의 등장: 로이 릭턴스타인의 ‘이것 좀 봐, 미키!’

(이하 생략)

<저자 소개>

델리우스 북 패키저스(Delius Book Packagers) 출판사는 1995년부터 역사, 문화사, 예술, 종교, 철학, 과학, 국가, 자연 분야의 논픽션 서적을 만들어 왔다.

제목: CEO OF EVERYTHING

가제: 인생 CEO, 싱글로 사는 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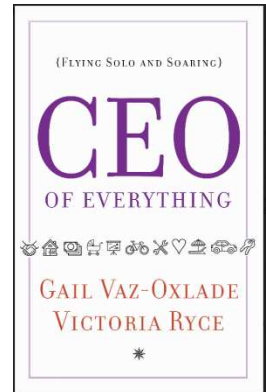
저자: Gail Vaz- Oxlade, Victoria Ryce

출판사: HarperCollins Canada.

발행일: 2016년 12월 13일

분량: 304 페이지

장르: 자기계발



* 캐나다 베스트셀러 저술가, 인기 방송 진행자가 제시하는 멋진 싱글 라이프 만들기

* 모든 것에 책임을 지고, 그만큼 자유를 누리는 인생의 **CEO**로 거듭날 수 있는 상세한 지침서

1인 가구가 증가 추세라는 뉴스가 수시로 들리는 시대가 열렸다. 과거에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이 먼저 세상을 떠나 홀로 남겨진 부양할 자식이 없는 노인들이 1인 가구의 대표적인 구성원이었고 사회적인 인식도 그러했지만 이제는 그 구성원의 연령대가 큰 폭으로 낮아졌다. 사귀다가 헤어지는 것은 물론 결혼을 하더라도 서로 맞지 않아 이혼하는 일이 예전처럼 큰 흠으로 여겨지지 않는 분위기가 널리 확산되고, 경제적인 이유를 비롯한 다양한 이유로 아예 결혼을 인생 계획에 포함시키지 않는 젊은이들도 늘어났다. 또 사고나 병으로 배우자를 일찍 잃으면 자식들을 생각해 재혼하는 경우가 많았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결혼 생활을 지속해나가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거의 사라졌다. 그런데 왜, 아직도 ‘혼자 잘 사는 법’을 제대로 알려주는 곳을 찾기 힘들까? 아직도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은 노년층에 머물러 있는 현 시점에서, 세 번의 결혼을 거쳐 캐나다의 유명 방송인 겸 저술가로 당당하게 홀로 살고 있는 저자는 병으로 남편을 여윈 또 다른 싱글 친구와 함께 혼자 잘 사는 비법을 전수하러 나섰다. 철저한 준비를 하고 홀로 사는 삶을 시작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두 저자는 다양한 이유로 싱글이 된 사람들이 맞닥뜨린 현실적인 고민과 당혹감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비롯해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방법, 익숙한 과거의 방식만 고수하다가 스스로 덫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는 방법, 그리고 자신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방법까지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시한다.

이유가 무엇이 됐건, 싱글이 된 사람들에게 두 저자는 “**CEO**로 승진”했다고 생각하라고 조언한다. 회사가 진행하는 모든 사업을 확인하고, 두루 관리하느라 골치가 아프지만 사업이 성공하면 그만큼 가장 많은 대가와 명성을 얻는 사람이 바로 **CEO**다. 전구가 나가는 것부터 유리창에 금이 가거나, 가전이 망가지는 일까지,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인생의 모든 일들을 누군가와 의논하지 않고 직접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만큼, 홀로 사는 사람들은 곧 자기 인생의 **CEO**와 다름없다. 그러니 서점에 경영 전략을 알려주겠다는 책들이 산더미처럼 쌓인 만큼 인생의 경영 전략을 세울 필요하다고 두 저자는 이야기한다.

한때 누군가와 짐을 나눠진 시간이 있었기에 어쩌면 더 무겁게 느껴지는 싱글의 삶은 직접 살

아보지 않고는 누구도 그 진면목을 알 수 없는 새로운 영역이다. 그리고 이 신대륙이 선사하는 즐거움과 행복은 담 너머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만큼 나쁘지 않다. 오히려 싱글이 되고 나서야 인생의 참된 기쁨을 느끼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보면, 안쓰러운 시선은 오히려 싱글로 살아보지 못한 쪽에 돌려야 하는지도 모른다. 두 저자는 이렇게 행복한 싱글 라이프를 스스로 구축해나가기 위해 꼭 필요한 정보와 마음가짐을 하나하나 설명한다. 돈을 관리하고 재산을 키워가는 방법, 혼자라서 직면해야 하는 문제들 중에 미처 대비할 수 없는 문제를 잘 이겨내는 등 누군가에게 기대고 누가 와서 자신을 구해주기만을 기다리는 수동적인 삶에서 벗어나 유능한 인생 CEO가 되는 전략을 배울 수 있다.

<목차>

머리말

1. 초기
2. 자기 자신의 변화
3. 주변의 변화
4. 없어진 직원을 대체하는 일
5. 반갑습니다, CFO 님!
6. 홀로 사는 법 터득하기
7. 갖가지 문제에 대처하기
8. 제자리에 머물거나, 앞으로 나아가거나
9. 좋은 일을 하라

정리하면서

<저자 소개>

게일 바즈 옥슬레이드(Gail Vaz- Oxlade)는 베스트셀러 『Debt- Free Forever(국내 번역서 제목: 돈 걱정 없는 행복한 인생)』과 『Money Rules』 등을 쓴 저술가이자 칼럼리스트이다. 매주 수백 만명이 시청하는 CNBC 프로그램 'Til Debt Do Us Part' 등 전 세계 약 30개국에 방영되는 여러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진행자로 활동하고 있다.

빅토리아 라이스(Victoria Ryce)는 주식중개인으로 일하다가 자기계발을 도와주는 개인 컨설턴트와 경영 컨설턴트로 일하면서 소니, 벨 캐나다, 도이치 은행 등 유수의 기업들과 함께 일해 왔다. 현재 온타리오에 살면서 다양한 매체에 글을 기고하고 있다.

제목 : RAISING THINKERS

가제 : 생각하는 아이로 키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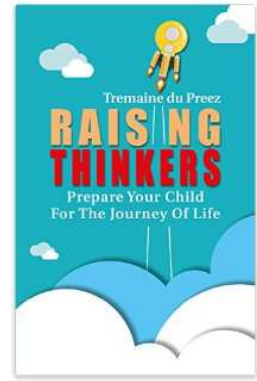
저자 : Tremaine du Preez

출판사: Marshall Cavendish International (Asia) Pte Ltd

발행일: 2017년 4월 15일

분량 : 208 페이지

장르 : 교육



* “철저한 조사를 바탕으로 멋지게 완성된 놀라운 책. 오늘날 부모들에게 주어진 가장 귀중한 과제, 즉 우리 아이들이 잘 살아가도록 키우는 일에 필요한 통찰력과 툴을 제공한다.” – **「The Science of Organizational Change」**의 저자 폴 기본스

* “아이를 자기 생각을 갖고 자신감 있는 사람으로 키우는 데 도움이 되는 실용적이고, 매력적이고, 영리한 아이디어를 찾는 부모에게 딱 맞는 책” – 구글 리더십 코치·팀 개발 담당자, 린다 스코티

우주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방대한 규모에 비해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은 극히 적어 늘 신비한 영역으로 여겨진다. 호기심 충만한 우리의 특성을 보여주듯, 인류는 수십 년 전부터 이 수수께끼 같은 우주의 비밀을 풀기 위해 막대한 비용과 인력,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다. 인류 최초의 혜성 탐사선 로제타호와 탐사로봇이 2004년 우주를 향해 마침내 발사되기 전에도 무수한 인력과 자원이 투자되어 19년 가까운 준비기간을 거쳤다. 저자는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 일도 우주 탐사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설명한다. 아이가 성인이 되어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술과 능력을 갖추기까지, 부모는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자신이 가진 모든 자원과 에너지를 쏟아붓는다. 그러나 우주 탐사만큼 그 결말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자원이 아무리 풍부하고,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사람들만 모아서 연구를 거듭해도 우주 공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모든 변수를 예측할 수 없듯이 아이가 발달하는 과정에서 겪게 될 변화와 우리 사회, 즉 아이가 자라는 환경의 변화는 누구도 정확히 예견할 수 없다. 이 막대한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부모는 아이를 어떤 방식으로, 어느 길로 안내해야 할까? 저자는 현재와 같은 교육 방식으로 아이를 미래 사회를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존재로 키울 수 없다고 지적하고, 부모가 아이의 인생 여정의 첫 20년을 함께 걸어가는 친구로서, 또 세상을 먼저 살아본 선배로서 반드시 말아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 이 책에서 상세히 설명한다.

불과 몇 십 년 전, 우리의 어린 시절 가정의 모습과 사회 환경이 지금과는 판이하게 달랐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아이들이 지금 우리의 나이가 되어 어엿한 성인이 되었을 때 살아갈 세상은 또 얼마나 변화할지 짐작할 수 있다. 그럼에도 현재 아이들은 귀중한 생애 첫 10-20년을 실효성 없는 교육의 대상이 되고 있다. 아시아 지역은 철저히 암기와 시험 성적을 강조하는 교육이 주를 이루고 서구 사회는 아예 최저 수준에 맞춘 교육이 이루어지거나 학업성취도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 올리고 말겠다는 맹목적인 목표를 세우고 달려가는 양극단의 모습을 보인다. 저자는 이

두 가지 모두 아이의 미래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양한 근거를 들어 설명하고, 아이들이 반드시 배워야 하는 것은 바로 창의적으로 행동하는 법, 문제를 해결하는 법,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법이라고 이야기한다.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강건하고 올바르게 자신의 꿈을 추구하며 살기 위해서는 기민한 사고 능력과 창의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저자는 아이가 갓 태어난 시기부터 10대 후반에 이르는 전 발달 과정에서 인지 기능이 어떻게 자라는지 알기 쉽게 설명하고, 각 단계에 부모가 이 능력을 한층 더 높이 끌어 올리기 위해 해야 할 일과 활용할 수 있는 툴, 기술을 전수한다. 사회적 환경과 호르몬의 변화, 동기 유발, 성격 형성 등 발달 과정의 핵심 요소를 포괄적으로 종합한 교육 지침서다.

<목차>

1부. 부모 되기 대작전

머리말: 지금껏 어떤 부모도 가지 않은 길

1장. 평생 이어질 여정

2장.

2.1 고학력자는 넘쳐나는데 기술력은 부족한 미래

2.2 기업이 대비해야 할 미래

2.3 이력서는 가고 인공지능은 장수한다

3장.

3.1 국제 학업성취도평가의 땅에 설립된 학교들

3.2 사과와 배의 차이점

2부. 사상가로 길러라

4장

4.1 코치로서 부모의 역할

4.2 더 나은 의사선택을 도와주는 코칭 툴

4.3 번뜩이는 생각에 귀를 기울여라

(이하 생략, 총 3부, 9장으로 구성)

<저자 소개>

트레멘 뒤프리즈(Tremaine du Preez)는 행동 경제학자이자 컨설턴트로 정부기관과 다국적기업, 경영대학원을 포함한 대학원 과정에서 행동 경제학과 의사결정학, 비판적 사고를 가르치는 강연자로도 활동해 왔다. 싱가포르 통화청에서 활용할 비판적 사고 교육프로그램을 설계했다. 현재 듀크 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제목 : THE INSULIN RESISTANCE SOLUTION

가제 : 인슐린 저항성에서 벗어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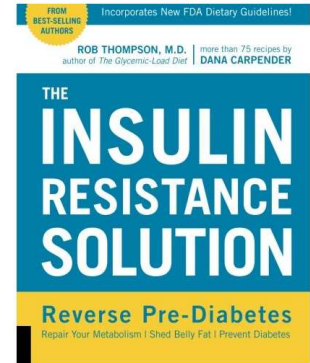
저자 : Rob Thompson, Dana Carpender

출판사: Fair Winds Press

발행일: 2016년 1월 1일

분량 : 192 페이지

장르 : 건강



- * “인슐린 저항성으로 건강에 이상이 생긴 미국인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많은 상황에서, 저자는 이 전염병이 소리 없이 발생한 이유를 과학적으로 설명한다.” -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Wheat Belly」**의 저자, 의학박사 윌리엄 데이비스
- * 당뇨병으로 넘어가기 직전, 당뇨 전단계 상태에서 벗어나 신진대사를 복구하고 뱃살도 없앨 수 있는 식생활 정보와 **75**가지 레시피

몸에 좋은 음식을 먹고, 식습관을 건강한 방식으로 바꾸면 당뇨병이나 심장병, 그 외 다른 질병도 개선될 수 있다는 사실은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심장질환 전문의와 직접 개발한 저탄수화물 레시피와 식생활 개선 전략을 소개해 준 저자가 함께 쓴 이 책에서 그 방법을 단계별로 배울 수 있다.

미국은 40년 전보다 과체중 인구가 두 배에 육박할 정도로 폭 퍼진 몸매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다. 입고 싶은 옷을 마음껏 입지 못하는 문제보다 더 심각한 건 과체중으로 인한 건강 문제이다. 어쩌다 불과 몇 십 년 사이에 이런 거대한 변화가 생겼을까? 그 당시의 사람들보다 현대인의 의지가 더 약해서 먹는 음식을 조절하지 못한다는 건 이치에 맞지 않다. 학계는 한층 더 발달한 기술을 발휘하여 무엇이 우리를 병들게 하는지 추적해왔다. 그리고 음식에 들어 있는 콜레스테롤이 심장발작을 일으키고, 지방을 너무 많이 먹는 바람에 비만 인구가 늘었다고 주장했다. 1970년대부터 21세기 직전까지도 ‘올바른 식생활’이라며 업계는 물론 보건 당국까지 나서서 주장한 내용의 핵심은 지방과 콜레스테롤을 최대한 적게 먹으려고 애써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2002년까지 평균체중이 줄지 않은 것만 봐도 이러한 주장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저자는 진짜 원인은 ‘인슐린 저항성’이며, 복부 비만과 성인이 되어 처음 발병하는 당뇨, 여성의 불임, 남성의 테스토스테론 저하 모두 같은 원인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한다. 우리 몸이 혈액을 통해 근육 곳곳에 포도당을 전달하려면 인슐린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인슐린에 ‘저항성’이 생기면, 근육은 인슐린에 제대로 반응하지 않는다. 신호를 보내도 변화가 없으니, 인슐린을 만드는 췌장, 즉 췌장의 베타 세포에서는 다급히 더 많은 인슐린을 만들어낸다. 신호의 강도를 높이려는 이 시도로 인슐린이 정상적인 수준보다 늘어나면, 혈당 균형이 망가지기 시작한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당뇨는 물론 만병의 원인이 속속 생겨난다.

저자는 인슐린 저항성도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으며, 이미 문제가 생겼더라도 치료할 수 있다

는 희망적인 소식을 전한다. 단, 과거에는 생활방식 자체가 따로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인슐린 저항성을 막을 수 있었다면, 이제는 체내 인슐린 수준을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해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책 1부에서는 별 것 아닌 것 같은 생활습관의 변화로 인슐린의 영향을 대폭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하고, 2부에서는 인슐린에 대한 인체의 반응성을 되찾고 고된 운동이나 다이어트를 하지 않고도 호르몬 균형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한다. 마지막 3부에서는 이 과정에 힘을 보태줄 맛있고 건강한 요리법이 제시된다. 현대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제대로 알고 대처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가 가득한 건강서다.

<목차>

머리말: 복부 지방 – 광산의 카나리아

1부. 인슐린 저항성이란

- 1장. 인슐린: 우리 몸에 너무 유익한 물질
- 2장. 인슐린 저항성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 3장. 인슐린 저항성을 키우는 원인
- 4장. 현대사회에 번진 전염병

2부. 신진대사를 정상으로 되돌리려면

- 5장. 지근(적색근)을 깨워라
- 6장. 혈당부하를 파악하라
- 7장. 탄수화물 차단 물질
- 8장. 뱃살부터 없애라
- 9장. 헛된 소문에 휘둘리지 말 것
- 10장. 도움이 되는 약물

3부.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는 레시피와 식단

<저자 소개>

롭 톰슨(Rob Thompson)은 심혈관 질환 전문 의학박사로 25년 이상 콜레스테롤 문제와 당뇨병, 심장 질환을 앓는 환자들을 치료해 왔다. 저서로는 베스트셀러 『The Glycemic- Load Diet』와 『The Glycemic- Load Diet Cookbook』 등이 있다.

다나 카펜터(Dana Carpender)는 체중 조절을 위해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는 법을 연구하면서 저지방 다이어트의 문제를 깨달았다. 이후 저탄수화물 다이어트와 요리법을 『500 Low Carb Recipes』, 『Fat Fast Cookbook』 등 여덟 권의 책으로 발표하여 전 세계적으로 100만 부 이상 판매되는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다. 매주 2만 명 이상이 찾는 개인 블로그를 통해서도 저탄수화물 식생활 정보를 제공하고 건강 잡지 「CarbSmart」의 편집자로도 활동하고 있다.